

문자, 존재와 사랑의 집

문자를 통해 내 스스로 사랑하는 인간임을 확하는 것의 즐거움

글 김응교 시인, 와세다대학 문학부 객원교수

문자란 무엇일까? 문자를 통해 인간은 어떻게 살아 가는가?

요즘 '문자' 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휴대폰 '문자' 혹은 메신저 '문자' 가 아닐까? 손가락만 까닥거리 "지금 문자 보냈어" 라고 할 때 문자 말이다. 기계적 '문자' 의 공통점은 빠른 의미 전달을 위해 삶의 풍성한 표현을 생략한 채 이른바 뜻만 전하는 기호의 역할이다. 사실 문자는 인간의 대화를 위한 소통의 도구, 인간 역사를 기록해내는 귀중한 매체이다. 문자가 없다면 확실한 대화나 역사의 기록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문자의 의미는 단순하게 핸드폰으로 보내는 메시지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월드컵 등 거대한 영상 이미지에 밀려 이제는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존재의 집

하이데거는 인간이 생각할 때, 인간이 존재한다는 증거로 언어로 나타난다고 했다. 모든 사물도 언어에 의해 명명되고, 구분된다. 거꾸로 모든 인간과 사물은 언어에 의해 존재적 가치를 얻는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 (Die Sprache ist das Haus des Seins) 이라고 했다. 가령, 성경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1:1)라는 한 구절에서 '말씀' 이란 단어는 '계셨다' 라는 동사로 인해 존재, 곧 '하나님' 이 된다. 인류 최초의 문자라는 수메르 설형문자나 중국의 한자 역시 말할 필요 없이 당대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렇게 문자는 그 글을 쓰는 이와 그 시대의 모든 존재적 삶이 담겨 있다. 문자가 없는 종족도 있다. 문자가 없다는 것 자체도 존재성을 갖고 있다.

일본 본토에서 밀려나 홋카이도에서 살고 있는 아이누족은 본래 문자가 없다. 그들은 오직 말로만 생활했기에 아름다운 구전설화가 잘 발전되어 있다. 아이누족은 일본 본토에서 밀려났지만 영원한 평화를 늘 꿈꾸었다. 그들은 땅을 신으로 섬기며, 땅에 화학 비료를 주는 선교사들을 미워하기도 했다. 이들이 문자를 가지지 않은 이유도 오직 평등과 평화를 누리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이누족이 문자를 갖지 않은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한다. 문자를 갖게 되면, 법률이 생기고, 법률에 따라 인간 사이에 차등을 두어 계급을 만들게 되고, 역사를 기록하면서 전쟁과 점령을 기록하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피하고 싶어, 문자를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존재의 집인 문자의 개성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외국책을 번역할 때 작가라는 존재는 깡그리 무시되곤 한다. 예전에 우찌무라 간조의 책을 읽은 적이 있다. 한국에서 번역된 어떤 책은 독자에게 쉽게 읽히기 위해서라며, 우찌무라 간조의 지식인적이고 문법에 척척 들어맞는 문장을 거의 초등학교 교과서 수준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그 번역본에서 지식인 우찌무라 간조는 사라지고 '초등학교 교실의 우찌무라 간조' 만 살아 있었다. 책을 번역하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존재를 죽이고 있는가.

이중언어 혼종문화

11년 전 일본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영어와 일본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써야 했다. 이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말을 못하고 말더듬이가 되어, 글을 써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정확히 쓰지 못하는 시간을 지내야 했다. 이른바 언어혼동현상이란 병을 호되게 겪었다. 일본에서 생활한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가장 심했다. 내가 쓴 우리말 문장은 말은 분명 한국어인데, 문법적 구조나 단어는 일본어 구조로 변해 있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읽고 검토해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 병이 깊었다는 데 있다. 자폐증 아동에게서 보이는 임상양상의 하나인 ‘언어발달의 지연’ (delayed language development)이 나타났다.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렵기까지 했다. 후배인 한 문학평론가가 “형, 정말 이 글 형이 썼어요? 일본인 유학생이 우리말로 쓴 거 아니에요?”라고 할 정도였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당시 이중적인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던 존재의 표상이었다.

1930년대 한국 작가들의 소설 문장을 보면 이런 이중언어현상을 잘 볼 수 있다. 가령 가을이 되면 늘상 떠오르는 글이 있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효석의 〈낙엽을 태우며〉(1938)라는 글이다. 그런데 사실 이 글은 우리말로 쓰여지기 1년 전, 1937년에 먼저 일본어로 발표되었던 글이다. 이효석은 1년 후 이 글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발표했다.

얼마 전 세미나에서 〈낙엽을 태우며〉를 일본어 문장과 한국어 문장을 비교해보면서, 왜 한국어 문장이 그토록 어색했는지 원인을 알게 되었다. 커피를 끓여먹고, 백화점 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산다든지, 스키장을 간다든지, 1930년대의 민족적 상황과 안 어울리는 이효석의 도시적 삶이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다. 이효석은 이중언어 속에서 한국어를 쓸 때도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 한국어 문장 속에 일본어 단어와 표현이 섞여 어색한 한국어가 되고 말았다.

사실 1930년대 한국의 소설과 시를 보면 식민제국 일본 국어가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물론 일본어는 외국어가 아니었지

만 말이다. 글 속에 이미 식민지 시대에 평양 숭실전문 의 교수로서 넉넉한 생활을 하는 이효석의 존재, 그리고 일본문화와 한국문화가 혼재된 이효석의 정신상태가 생생하게 부조(浮彫)되어 나타난다.

사랑의 집, 언어

얼마 전,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는 학생과 종이에 펜으로 써서 편지 보내는 학생의 두뇌 발달을 비교하는 NHK 특집 방송을 본 적이 있다. 그냥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학생들의 뇌는 거의 움직임이 없어, 뇌가 빠르게 노쇠되어 가는 현상을 보였다. 반면 종이에 펜으로 편지를 쓰는 학생의 뇌는 쉬지 않고 운동을 했다.

글을 쓸 때 종이를 어떤 모양으로 두고 쓸지 생각하는 동시에, 한 행을 균형 있게 쓰려고 애쓰는 동시에, 글씨 크기를 조정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에, 이 모든 행동이 그의 뇌를 자극시켜, 두뇌 전체가 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국 손으로 편지를 쓰는 학생의 두뇌 세포는 훨씬 젊었다. 이렇게 볼 때 문자를 기계적으로만 사용할 때, 그때 문자는 이미 존재의 집이 아니라, 존재의 무덤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인류는 가장 놀라운 업적 중에 하나는 문자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 문자, 문장은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존재의 집을 지어왔다. 나는 이 존재의 집을 평생 소중히 세워나가고 싶다. 그래서 손으로 글을 쓰는 수공업적 삶을 즐기고 싶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메일로 보내면 될 것을 노란색 편지지에 정성 다해 편지를 써서 붉은 단풍을 감상하며, 노란 낙엽을 밟고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였다.

나에게 적어도 문자는 인간에 대한 예우를 전하는, 사랑이란 벽돌로 단단하게 지어진 집이다. 이러할 때 내가 꿈꾸는 언어는 존재의 집을 넘어선 ‘사랑의 집’이 된다. 나는 문자를 통해 내 스스로 사랑하는 인간임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한글**